

남북화해 · 협력을 위한 「평화의 섬」 제주의 기여점과 과제

고성준*

I. 서론

6·15남북정상회담 이후의 남북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시대로 급진전하였다. 그러나 2001년 부시 행정부의 등장 이후 북한측에 의해 화해·협력 관계를 내실화하기 위한 일련의 회담이 중지되는 등 남북한 관계가 갑자기 일단정치 상태에 들어가는 듯 했다. 그런데 다행히 그 동안에도 민간차원의 교류 협력은 계속 이어져 옴으로써 화해의 물꼬를 유지할 수 있었고, 드디어 2차례(5차, 6차)에 걸친 당국 간 장관급회담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제주인들은 지난 10여 년 동안 평화의 섬 만들기를 통해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이끌어 내는데 기여해 왔을 뿐만 아니라,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회담의 개최 지원,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등을 통해 북한동포 사랑을 끊임없이 실천해 왔다.

이 글은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를 간략히 짚어 보면서 남북 화해·협력의 관점에서 평화의 섬 제주가 기여해 온 점들을 반성적으로 되돌아본다. 그리하여 앞으로 내실 있는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 가는 데 평화의 섬 제주가 해야 할 역할과 그에 따른 제주인들의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한다.

II.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관계의 현황

6·15남북정상회담 이후 지난 2001년 2월까지 남북한은 그야말로 「6·15 남북공동선언」의 정신에 기초하여 여기서 합의된 사항의 이행을 포함한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다양한 통로의 대화와 교류 협력을 실천해왔다. 남북장관급회담(4회), 남북특사회담(1회), 남북국방장관회담(1회), 남북군사실무회담(5회), 남북경제실무회담(2회), 남북적십자회담(3회) 등의 개최가 그것이다. 뿐만 아니라 6개의 통로로 16회에 걸쳐 남북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3차례에 걸친 이산가족 교환방문 및 상봉행사가 성사되었고, 경제 사회 문화부분에서의 남북간 왕래와 교류 협력도 괄목할만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¹⁾

그 동안 합의사항이 이행된 부문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기로 하면, 먼저 남북 교류협력부문에서는 경의선 철도와 도로 연결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데, 현재 비무장지대 이남지역의 경우 철도 85%,

* 제주대학교 교수

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국민의 정부 '햇볕정책' 추진방향, 성과 및 과제」, 제10기 해외위원 전체회의 참고자료 (2001.9), 10~22쪽.

도로 79%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을 안정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한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 청산결계, 상사분쟁 조정 절차 등의 4개 경험합의서에 서명하는 등 법적·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었다. 아울러 인적·물적 교류도 큰 폭으로 늘어났는데, 인적 교류의 경우 금강산 관광객을 제외하고 금년 8월까지 6,500여명이 남북을 왕래하였는 바, 이는 전년 동기 4,900여명에 비해 33%가 증가한 수치다. 그리고 남북한간 교역은 작년에 처음으로 4억 달러를 넘어서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하였으며, 금년의 교역규모도 전년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비교적 경제분야의 교류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사회 문화 분야의 교류 협력도 눈에 띄게 늘어났다. 평양교예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조선국립교향악단의 서울공연에 이어 남한측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과 남북 신문교환 합의, 백두산관광단의 방북, KBS-TV와 조선중앙 TV의 프로그램 공동제작 및 방영, 남북 노동자토론회 개최, 남북 합작 만화영화 제작, 창무극 춘향전 평양공연, 2차례에 걸친 감귤분배 확인단의 방문²⁾ 등이 이어졌다. 한편, 남북정상회담 이후 가장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은 이산가족 문제였다. 지금까지 3차례의 이산가족방문 교환을 통해 3,600여명의 이산가족이 분단 반세기만에 헤어진 혈육과 감격적 상봉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생사 주소 확인을 위한 명단교환 과정에서 6,000명이 서로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난 3월에는 분단 이후 최초로 남북간 서신교환이 이루어져 남과 북 각각 300명이 그리운 가족에게 소식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관한 분야에 있어서도 작년 9월 25일 제주도에서 개최된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군사적 긴장완화, 전쟁위험 제거,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국방장관회담의 합의에 따라 개최된 5차례의 군사실무회담을 통해 '경의선 철도 및 고속도로 통과 DMZ 구역 관리방안'을 작성하고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서명 발표시키기로 합의하는 성과가 있었다.

사실 이상의 사항만 놓고 보더라도 남북관계의 진전은 획기적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합의사항의 도출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 실천을 미루고 있는 것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보다 더 큰 문제는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남북한 화해의 관계가 정지되거나 되돌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6·15정상회담 이후 급진전되던 남북관계가 2001년에 접어들어 지난 8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일단정지 상태에 머물러 왔는데, 이처럼 남북관계의 진전과 정체가 일어나는 것은 아직도 한반도에 냉전의 유산이 남아있음을 뜻한다고 하겠다.³⁾ 주지하듯이, 한반도문제는 민족내부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 문제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볼 때 아무래도 2001년 이후 남북관계의 갑작스런 일단정지 상황을 가져온 이면에는 미국의 부시 행정부 등장이후 조성되어온 신 냉전의 기류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것이다.⁴⁾

그러나 지난 6월 부시 대통령은 대북 정책 성명을 통해 북한과의 조건없는 대화용의를 천명하여,

- 2) '99년 11월, 100톤을 지원하면서 시작된 북한의 감귤보내기운동에 대한 분배확인단의 방북은 지금까지 4차례 이루어졌다.
 가) 2000년 2월 8일~13일, 김정서 영락교회 목사 외 3명
 나) 2000년 3월 28일~4월 1일, 우근민 제주도지사 외 3명
 다) 2001년 1월 7일~13일, 강영석 제주상공회의소 회장 외 9명
 라) 2001년 2월 5일~10일, 신철주 북제주군 군수 외 9명
- 3)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유호열, "대북정책 추진의 국내적 기반연구", 북한학회 2001 하계세미나 자료(2001.7), 40~48쪽 참조.
- 4) 정세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의 전망과 과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 주최 평통위원 연찬회 특강자료(2001. 9), 5~8쪽 참조.

새 가지 의제를 제기했다⁵⁾. 그리고 김정일은 러시아 방문, 중국 장쩌민과의 평양회담 등을 통해서 그들로부터 남북대화의 지속을 권유받았다고 한다. 이러한 점들이 계기가 되어 다시 남북 당국간 회담이 재개되었는지 모른다. 그러나 대외적 환경변화 못지 않게 중요한 요인은 6개월 동안의 모든 당국간 회담의 개점휴업 상태 속에서도 지난 8·15평화축전 등에서 보듯 파행적인 측면이 있고 점차 탄력을 잃어 가는 측면도 없지 않았지만, 민간부문에서의 교류협력이 계속 유지되어 왔다는 점이다. 금강산 관광은 그 사업규모가 상당히 축소되기는 했지만 남북교류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고, 국내 NGO들의 대북 지원도 꺼져 가는 불씨를 살려 왔다. 여기에 제주도의 북한동포에게 사랑의 감글 보내기 운동 및 당근 보내기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런데 6개월만에 재개된 제5차 장관급 회담을 앞두고 미국테러참사가 발발하고 말았다. 갑작스런 국제 문제에 남북이 공동으로 적극 대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반테러선언을 의제로 제시했지만 북한은 찬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와 김정일위원장의 서울답방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진전 없이 4차 회담의 합의사항을 재확인하는 수준에서 5차 장관급회담은 끝나고 말았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6개월 동안 개점휴업을 끝내고 회담의 정례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한 것이었다. 그래서 제5차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제6차 장관급 회담이 금강산에서 열렸는데, 이번 회담은 출발부터 난항의 연속이었다. 미국테러 사건을 계기로 한국에 취해진 테러관련 경제강화 조치가 문제였다. 회담 기간을 연기해 가면서 이산가족 상봉, 경제협력추진위원회 2차 회의 개최, 제7차 장관급 회담 일정 등에 대해 의견을 좁히려 시도했지만, 결국 회의는 결렬되고 말았다. 공동보도문을 못내고 회의가 결렬된 것은 처음있는 일로써 앞으로의 당국간 회담과 관련하여 매우 우려되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⁶⁾.

내실 있는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6·15정상회담 정신으로 돌아가 남북한은 미비된 합의사항과 미뤄왔던 실천적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 동안 후속조치나 구체적 실천방안이 마련되지 못한 채 미뤄져온 문제로 이산가족 면회소 설치운영 문제는 그 대표적인 경우다. 북한 대표단의 한라산 방문과 경제시찰단의 남한방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에 앞선 김영남 상임위원장의 서울방문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남북경제 교류협력과 관련해서 4개 합의서 채택 이후의 후속조치, 임진강 공동수해방지사업이나 대북 전력지원사업 등도 착수하지 못했다. 남북 군사 당국간 실무회담으로 착수했던 경의선 복원 사업 역시 북한측은 합의서 서명을 미뤄왔고 공사에 착공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상 중단되었다. 이제는 다시 재개된 당국간 회담의 전도조차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북한의 주장대로 엄청난 재앙을 끼친 미국에 대한 테러사태와 그에 대한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이 남북한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⁷⁾. 이런 불행을 남북한은 오히려 화해와 평화의 관계

5) 6월 6일 조지 부시 미대통령은 성명에서 첫째, 제네바 기본합의서 이행상의 개선, 둘째는 검증 가능한 미사일 개발계획의 억제와 미사일 수출금지, 셋째는 재래식 병력면에서 오는 위협감축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김연진, "북, 미와 화해 원한다면", 「동아일보」, 2001년 9월 20일자 참조

6) 북한은 6차 장관급회담에서 남한사회에 내려진 테러관련 경제강화 조치, 최근 한국의 외교활동과 통상적인 군사훈련 등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시했으며, 남한대표단은 그러한 북한의 인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했다. 결국 이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 남북한 6차 장관급회담은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통일부 "제6차 남북 장관급회담 보도참고자료", (2001. 11. 14), 1~7쪽

7) 북한이 「6·15」 정상회담에 응하게 된 배경에는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과 북-미 관계의 근본적 개선 시도였다. 따라서 미국에 의한 반테러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북-미관계 개선의 전망이 흐려지는 것도 북한이 남북한 관계개선에 소극적 태도로 나오게 된 이유의 하나다. 미국 반테러전쟁 이후의 한반도 정세분석은 민주평통 주최 제6차 전문가회의(2001. 10. 19)에 발표된 이현경, "미국의 반테러전쟁이 한반도정세와 남북한 관계에 미치

로 한 발짝 더 다가서는 계기로 삼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01년 이후 6개월 여간 당국 간 대화채널이 중단되었을 때 민간단체와 지자체의 대북지원과 교류가 중요한 역할 했듯이, 앞으로도 이들의 기여는 중요하다. 여기에 제주인들의 북한동포 사랑, 평화 사랑의 마음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Ⅲ. 남북 화해·협력에 「평화의 섬」 제주의 기여점

‘평화의 섬’을 만들기 위해 제주인들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온 지도 어언 10여 년의 세월이다. 그 동안의 ‘평화의 섬’ 만들기 노력이 새로운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게 하는 데도 일조를 담당했다고 제주도민들은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제주인들은 지난 98년부터 북한에 사랑의 감귤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대한 화해의 메시지를 보내왔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 부담이 적은 제주야말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최적 지임을 주장해 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인들의 북한동포돕기 운동은 남북정상회담 이후에도 계속되어 왔다. 벌써 3회 째에 접어든 감귤 보내기 운동, 그리고 당근 보내기 운동 등이 그것이다.

1. 남북회담 개최지로서의 제주

제주인들은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의 해체되면서 국제적 탈냉전이 본격화되는 90년대 초부터 줄곧 제주야말로 남북한간에도 냉전을 종식시키고 화해와 평화를 모색하는 남북회담의 적격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왜냐하면 이전까지 주로 회담장소로 이용되어온 판문점이나 서울 또는 평양 등은 냉전적 대결의 상징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회담에 임하더라도 그것은 제로 섬 게임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주는 “한라에서 백두까지”라는 상징성도 있을 뿐더러, 국내 어느 지역보다 분단과 깊은 관련이 있으면서도 남북의 이해 상충이 가장 적은 곳이라 제주인들은 판단했다. 그래서 제주인들은 90년대 이후 ‘평화의 섬’ 만들기 노력과 함께 남북한간 화해의 메신저가 될 것을 천명하여 왔던 것이다.

이러한 제주인들의 노력이 6·15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결실을 맺어 제주가 본격적으로 남북회담의 개최지로 제공됨으로써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 가는데 중요한 기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제주에서 개최된 일련의 회담은 남북특사회담(2000년 9월 12일),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동년 9월 25~26일),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동년 9월 27~30일) 등이거니와, 특히 평화의 섬 제주에서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열렸다는 것은 상징성 이상의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김정일도 2000년 8월 북한을 방문한 남측 언론사 사장단에게 한라산에서 일출을 감상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거니와, 이처럼 언제가 있을지 모르는 김정일의 제주방문을 위한 사전답사 차 동년 9월 11일 김용순 특사는 제주를 방문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가 제주에 온 이튿날 남한의 특사인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과 김용순 노동당 비서는 회담을 가졌다. 이 특사회담에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김영

는 영향 및 우리의 대응책” 참조.

남 상임위원장의 서울방문 문제,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서신교환 문제, 경제실무회담 개최 문제 등과 더불어 국방장관회담의 개최 문제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물론 특사회담에서 국방장관회담 개최 문제가 처음 논의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전격적으로 개최 합의를 함으로써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평화의 섬 제주에서 열릴 수 있었다. 9월 25~26일 양일간에 걸친 이 회담에서는 군사적 긴장완화, 전쟁위험 제거, 한반도 평화 등에 대해 원칙적 합의를 이룸으로써 한반도에서 냉전의 해체와 영구적 평화를 모색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것이었다.

한편, 이미 예정되었던 대로 제1차 남북국방장관급 회담이 있었던 다음날(2000년 9월 27~30일)부터 제주도에서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이 개최되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한 양측은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확고한 실천·이행 의지를 재확인하는 한편, 2차 회담까지 남북한간 합의사항들의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평가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즉 생사교환·서신교환·면회소 설치 문제, 투자보장과 이중과세 방지 문제 및 청산결제 제도 마련, 친선축구대회와 교수·대학생·문화계 인사의 상호방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상에서 제주에서 개최된 일련의 회담에 대한 간략히 언급했거니와, 이 회담들이 개최되는 동안 북한대표들이 보여준 회담에 임하는 자세나 남긴 언사들에서 <남북회담 개최지로서의 제주>가 제주인들만의 희망은 아니었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테면, 특사로 온 김용순 노동당 비서는 “제주는 외래 침략자와의 투쟁에 앞장서는 등 애국이 서린 섬”, 그와 동행했던 립동옥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백두산과 한라산을 하나의 마음으로 이으면 그것이 곧 통일”이라 하여 북측 인사들의 제주를 보는 시각을 보여주었다. 국방장관회담에 참가했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제주공항 도착 직후 “통일을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라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한라까지 왔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성공적인 회담을 암시했는가 하면, 제3차 남북장관급회담에 참석했던 전금진 단장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통일의 무지개를 그리는 마음으로 왔다.”고 전제하고 “백두산 폭포수 예까지 흘러와 통일폭포를 이뤘구나”라는 감상을 표출하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북측 인사들의 제주에 대한 시각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제주는 남북회담 개최지로서의 매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2.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

제주인들이 인도적 차원의 북한동포돕기 운동을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부터였다. 감귤 보내기 운동에서 출발하여 올해는 당근 보내기로까지 이어졌다. 지금까지 제주인들이 펼쳐온 북한동포돕기 운동 실적을 간단히 적시하면, 먼저 감귤은 1998년 산 100톤, 1999년 산 4,336톤이었고, 2000년 산은 3,031톤이었고, 이 모두를 합쳐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23억 7천만원 어치에 달한다. 아울러 올해 지원해 준 당근은 2천톤인데, 그것은 5억 8천만원 어치로 감귤지원에 든 비용과 합하면 총 29억 5천만이나 되는 규모이다. 이러한 지원 액수는 <표 1>에서 보듯이 전국 지자체 및 지방소재 민간단체 중 가장 많은 대북 사업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6·15정상회담 이후에 펼쳐진 2000년 산 감귤과 당근 보내기 운동을 중심으로 그 추진경과를 간략히나마 살펴봄으로써 제주인들의 북한동포 사랑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 11월 제주도와 도민들의 지원아래 도내 각 분야의 지도자들이 모여 이전 해에 이어서 북한에 감귤을 보내주기 위한 민간 중심의 북한에 사랑의 감귤 보내기 도민운동본부(상임대표 강영석)가 결성되었다. 이후 도민운동본부는 도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북한에 사랑의 감귤 보내기」 캠페인을 벌여 나가는 한편, 북한

접촉과 협의를 위한 제도적, 실무적인 절차를 준비해 나갔다.

〈표 1〉 지자체 및 지방소재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현황

단위: 천만원

구분	지원단체	지원품목·수량	금액	지원경로
2000	북한동포돕기 제주도민운동본부	감귤 3.031톤	237	독자창구
	강원도	농업용 비닐 27,000롤(415톤)	55	한적
2001	북한동포돕기 제주도민운동본부	당근 2,000톤	58	독자창구
	강원도	연어치어 55만미 방류자재 1식(21종) 등	13	한적
		술잎혹파리 공동방제 관련 약제	23	
	남북강원도협력협회	농업용비닐 195톤	29	한적
	철원군	경운기 100대	29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울산광역시	배 150톤	24	한적
	사랑의 김·미역 보내기 운동본부	미역 2,000톤	32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전남양파북한보내기 운동본부	양파 567톤	20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사랑의 방울토마토 보내기 담양군운동본부	방울토마토 50톤	12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농협과 감협의 적극적 동참아래 많은 제주도 농민들이 현물 참여를 하였고 많은 도민들이 성금 참여에 나섰으며, 또한 운송작업에 관계하는 기관을 비롯한 여러 기관과 단체들이 자원봉사에 직접 나서기도 하였다. 39,000 농가가 3,000톤의 감귤을 현물로 기증해 주었고 개인별 참가자도 3,000명으로, 합하여 무려 42,000여명이 현물 기증하였다. 그리고 371개 단체에 2,900여명이 성금으로 참여하여 2억4천만원이 모금되었다. 참고로 성금 참여 단체수를 적시해 두기로 하면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성금 참여 단체 수

참여단체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상공계	농협	천주교	불교	원불교	기독교	기타 시민단체	계
단체수	12	62	32	23	149	30	54	21	371

한편 이전과는 달리, 도민운동본부측의 노력으로 대한적십자 등의 중앙의 대북지원 창구를 통해서 해온 종래의 방식이 아니라 제주-북한을 직접 잇는 독자채널을 마련하게 됨으로써 감귤 보내기 운동은 어느 해보다 더욱 활기를 띠 수 있었다. 그리하여 11월 30일 도민운동본부는 조선 아-태 평화위원회와 2000년 산 감귤 3천31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를 보았고, 그 동안 감귤농가를 비롯한 온 도

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마련된 감귤과 성금으로 3차에 걸쳐(1차 지원 2000년 12월 16일 981톤, 2차 지원 동년 12월 23일 1,034톤, 3차 지원 2001년 1월 3일 985톤) 합의된 3천31톤의 감귤을 북한에 지원하였다.

아울러 도민운동본부는 감귤지원에 따른 북한 내 분배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하여 2차례(1차 방북 2001년 1월 7~13일, 2차 방북 동년 2월 5~10일)에 걸쳐 방북단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방북단이 분배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이 평양시내의 유치원, 탁아소, 산원 등에 국한되는 구조적 한계도 없지 않았으나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 모습의 북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편, 북한에 사랑의 감귤 보내기 범도민 운동의 성공적 추진을 바탕으로 제주인들은 북한동포돕기 도민운동본부(전 북한에 감귤 보내기 도민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제주의 또 다른 특산품인 당근도 북한에 보내 주기로 하였다. 북한에 당근 보내기는 감귤분배상황의 확인 차 2차로 방북했던 대표들이 먼저 북한측에 제의했고, 금년 1월중에 조선 아태평화위위회와 북경에서 실무협의를 갖기로 하였던 바 있다.

이에 따라 동년 1월 31일 도민운동본부와 북측 민족화해협회는 제주 당근 2천톤을 북한에 지원하기로 합의하였고, 동년 2월 15일 제주도민들은 합의한 대로 사랑은 실은 제주산 당근을 북한에 지원해주었다.

이상에서 제주인들의 북한동포돕기 운동에 관해 간추려 보았거니와, 이에 대한 북한의 반응에 대해서도 지적해 둘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것은 우리 제주인들의 북한동포 사랑이 매아리 없는 짝사랑만은 아님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앞서 지난 1월 감귤분배 확인 차 북한을 방문한 방북단에게 북한의 달라진 모습을 보여 주었음에 대해서는 언급했거니와, 방북단을 초청하여 만찬을 베푼 북한의 전금진 단장은 감귤을 보내준 제주도민에게 진정으로 감사함을 전하면서 “지난 9월 제주에서 개최된 일련의 회담시 북한 대표단을 따뜻하게 맞아준 제주도민들에게 감사하며 제주도와 제주도민이 21세기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중심역할을 다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전제하고 “향후 북한과 제주도 사이에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기대하며, 저희들도 그 소임을 다하겠다.”했다고 전한다. 이러한 언급에서 우리는 북한 지도층의 제주 평화의 섬에 대한 인식이 매우 긍정적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할 수 있겠다.

IV. 내실 있는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평화의 섬 제주의 역할과 과제

6·15정상회담 이후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맞아 제주뿐만 아니라 많은 지자체 및 민간단체들이 남북 교류협력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테면, 부산은 내년 아시안게임에 북한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으며, 강원도는 씨감자 원종장 및 연어 부화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은 북한 민족화해협의회와 협의 하에 남원 춘향전에 북한예술단체를 초청을 추진 중이며, 광주 김치대축제, 충남 국제꽃박람회에 북한을 끌어드리려 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들의 대북 교류사업들 중에서 우리 제주인들이 주목을 끄는 것은 경기도와 강원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려는 DMZ내 「평화지대화」 내지 「평화촌」 건설이라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구체적 방안까지 모색하는 대학살회의도 열린바 있다. 이 프로젝트에 따라 DMZ내에 「평화지대」가 설정되고 「평화촌」이 건설된다면 지금까지 구축해온 평화의 섬 제주의 위상은 하루아침에 상징적 의미만 남긴 채 물거품이 될지

도 모른다.

따라서 제주가 상징적 의미에 불과한 평화의 섬이 아니라 내실 있는 남북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 가는 실질적 역할을 수행해 나가려면 보다 차별성과 구체성을 가진 방안들이 강구되고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작은 통일공동체를 위한 <한라개방 선언>

제주인들의 능동적 통일염원을 담은 <한라 개방 선언>이 필요하다. 앞서 지적했듯, 6·15이후 제주에서 개최된 특사회담, 국방장관회담, 장관급회담 등 일련의 회담에 참석했던 북한대표들의 제주에 대한 시각과 소감은 상징적 의미 이상으로 앞으로 제주의 역할에 대해 매우 높은 기대감을 표시하고 있었다. 북한의 제주에 대한 호감은 지도층만이 아니라 북한주민들도 마찬가지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한라산에서 일출을 보고 싶다고 했던 것처럼 북한주민들도 한라산을 보고 싶어한다. 이처럼 북한주민들에게 제주는 남한의 어느 지역보다 선호하는 곳이고, 남북 대화와 만남의 최적지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필자는 일찍부터 제주가 먼저 남북한 화해와 협력의 땅이 되어야 함을 주장하여 왔다. 앞으로 제주를 방문할 북한동포들로 하여금 남북한의 통일에 앞서 제주에서 「작은 통일공동체」를 느낄 수 있는 지역으로 제주를 개방하는 <한라 개방 선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제 하루라도 빨리 이를 실천으로 옮길 때가 되었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제주인들의 북한동포 사랑을 이어갈 북한 이해 교육, 통일교육, 평화교육 등 교육적 노력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북한동포들이 제주에서 「작은 통일공동체」를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동포들이 제주를 찾아오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이를테면, 현재 제주가 21세기 위상으로 꿈꾸는 「세계평화의 섬」과 「국제자유도시」건설에 북한동포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참여를 설득시켜 나가는 구체적인 조치를 강구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3평화공원>, <남북평화센터> 등의 건립도 이러한 맥락 속에서 착실히 추진되어야 한다. 나아가 남북회담시설과 교류협력시설, 그리고 연수 시설 등도 하루빨리 갖추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설은 현재 추진중인 평화공원이나 평화센터 내에 갖추 수도 있으나 예물단지처럼 취급되고 있는 현재의 도지사 관사와 같은 곳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 보다 적극적인 사회·문화 및 인적·물적 교류의 추진

북한동포들이 제주를 찾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사회 문화 교류와 경제 및 관광관련 교류의 추진을 시도하여야 한다. 지난 1월 갑골 분배 확인을 위해 1차로 방문했던 방북단은 북한측과 향후 문화교류사업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북한예술단(교예단, 가무단, 성악가, 소년예술단 등)의 제주 방문 공연, 여성인사 상호 방문 등의 예술문화교류, 그리고 한라산·백두산 공동 학술탐사, 관광전문가 지원 등의 학술문화교류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호 교류가 가능할 지는 아직 미지수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문제 조차도 사회·문화교류 사업으로 보면서 그러한 상호방문이 북한체제에 미치는 요인들을 조정하는 이른바 남북관계의 속도조절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북남 단계가 열 단계로 되어 있다며, 이제 두 단계 정도 진행되고 있다. 상호인적교류는 다섯 단계 정도 진행되어야 가능하지 않은가”라는

북한민화협 허혁필 부회장의 표현에서 드러나듯, 북한은 상호인적교류보다는 선별적인 북한방문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지적했듯, 제주도민의 북한방문 못지 않게 진정한 화합을 위해서는 북한동포들의 제주방문이 필수적이다. 이것은 제주도민들의 북한동포애를 계속 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따라서 감귤분배 확인 방북단이 북한측과 교환했던 의견대로 여러 방면에 걸친 상호 방문과 사회 문화 교류가 실천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야 한다. 우선적으로 들불축제, 한라문화제, 섬문화축제 등의 축제행사에 북한예술단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으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한라산·백두산 공동 학술연구 외에도 청소년 상호방문과 공동 캠프 등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제주와 북한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오는 구상무역식 경제교류도 추진해 나가야 한다. 농축특산물의 교류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특히 관광관련 교류를 통해 상호이익을 얻어 가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백두산이 소재한 양강도 및 삼지연군, 나아가 관광명소지들과 자매결연을 맺는 등 관광벨트화를 구축하는 시도를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게 관광전문가 및 인력의 연수도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서둘러서 될 일은 아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3. 북한지원의 내실화와 다양화

북한지원의 내실화와 다양화를 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상호인적교류, 사회·문화교류 등에서는 속도조절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되는 민간단체의 대북지원 및 금강산 관광 등은 남북관계의 경색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실행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감귤과 당근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도 제주는 남한의 어느 지자체나 민간단체보다 많은 대북 지원사업을 해왔고, 이에 대한 북한동포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금년에도 감귤보내기운동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몰량도 지난해의 3배 이상이 되는 만톤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의 북한동포돕기 운동의 여세를 몰아 감귤과 당근과 같은 소수품목의 농산물 지원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품목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여기서 고려할 점은 소비성 농산물이 아니라 생산성 있는 지원이 되어야 하며,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우리는 북한과 돼지종돈 분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해외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제주 씨돼지 수출에서 보듯이 제주도의 축산농업 기술을 토대로 북한과 협력사업을 전개해 나가는 일이다⁸⁾. 이를 위해 북한의 특정지역과 자매결연을 맺어 축산물 생산단지를 공동으로 조성할 수 있고, 북한주민들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연수교육을 시켜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각종 대북 지원에 따른 운송방안 개선 협의를 북한측과 벌여 북한측 선박의 활용, 육로 이용 등의 운송비 절감 차원의 노력도 있어야 할 것이다.

4. 대북지원 창구의 재정비와 전담인력의 양성

제주도의 대북 지원 창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99년부터 북한에 감귤 등을 지원해온 단체는 <북한동포돕기 제주도민운동본부>인데, 이 단체는 작년에 중앙정부를 거치지 않고 북한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독자적인 대북 지원 창구를 확보한 바 있다. 그리고 동 단체는 통일부의 지원아래 비영리법

8) 손명진, "담으로 연 제주 씨돼지 수출길", 『동아일보』, 2001. 9. 28

인 단체로 승격되고, 최근에는 단체명칭을 <남북협력 제주도민운동본부>로 확대개편함으로써 대북 지원 및 남북교류협력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이 단체 외에도 다양한 단체가 대북 지원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인들의 대북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이들 단체들이 서로 협조하여 대북 창구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아울러 앞으로 제주가 북한과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범위가 넓혀져 갈 것으로 예상할 때 이 분야를 전담하여 북한과 협상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 급한대로 지자체나 민간단체에서 대북지원의 실무적 일을 담당했던 인력을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 인력을 양성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5. 제주도민의 바람직한 대북 접근의 자세

이상의 실천과제들을 실현해 나감에 있어 우리 제주인들이 유의해야 될 자세 내지 마음가짐에 대해 재차 언급해 두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설득하여 제주로 끌어드리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우리 제주가 갖추고 준비해야 할 사항들을 서둘러 추진하여야 한다. 북한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 자세는 가장 기초적인 일에 해당한다. 이러한 바탕 위에 앞서 지적했던 여러 여건들을 서둘러 구비하여 나아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에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서두르고 조급함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구 서독 지자체들이 구 동독과의 교류협력 사례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구 서독의 지자체들은 구 동독과의 민간교류에 매우 적극적이었고, 확고한 자세를 가지고 요구할 것은 과단성 있게 요구하면서도 <작은 일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자세를 실천원칙으로 삼았었다. 특히 동서독 사이에 정치적 이해의 대립으로 당국간 관계가 종종 좌초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이를 극복한 것은 바로 민간지원 및 교류였다. 최근의 경색조짐이 보이는 남북한 당국간 관계를 보면서, 진정한 남북한 화해·협력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제주인들의 역할과 사명이 크다 하겠다. 그러나 우리도 북한에 접근함에 있어서 실현 가능성도 별로 없이 북한으로 하여금 큰 부담만을 안겨줄 수 있는 요구라든가, 서두르고 조급함을 드러내는 자세는 삼가야 할 것이다.